

알러지 鼻炎 患者 22例에 대한 임상적 고찰

송재진 · 김동희¹ · 박양춘 · 김철중*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교실, 1: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병리학교실

Clinical Study in 22 Cases of Patients for Suffering Allergic Rhinitis

Jae Jin Song, Dong Hee Kim¹, yang-chun Park, Cheul Joong Kim*

Department of Oriental internal medicine, 1: Department of Oriental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Taejeon University

Clinical studies were done treated with aroma therapy in 22cases of patients for suffering allergic rhinitis, who were treated at Dept of Oriental respiratory internal medicine in the Hospital of Taejeon University from January 2001 to May 2001.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distribution of sex & age, 45.5% of them were man, and 54.5% of them were woman. Of those who were attached, 2. In distribution of occupation, 59% of them were student, 18% of them were housewife, 18% of them were white color, 9% of them were blue color. 3. In distribution of the period of the clinical history, under six months was 32%, under 1 year was 9%, under 3 years was 27%, over 3 years was 32%. 4. In distribution of the seasonal contributing factor, most of them were perenial allergic rhinitis, others generally started in spring or winter. 5. In distribution of past history, 59% of them are none, 18% of them are asthma, 18% of them are atopic dermatitis, 5% of them are allergic dermatitis. 6. In distribution of family history, 46% of them are none, 27% of them are sibling line, 18% of them are paternal line, 9% of them are maternal line. 7. In distribution of syptom, the ratio of sneezing was 90%, nasal discharge was 81%, nasal obstruction was 46%, pruritus was 41%, headache was 31%, asthma was 22%, digestion disorder was 18%, tears was 9%, nosebreeding was 5%. 8. In distribution of dianogsis in descending order, wind-cold evil was 5%, spleen-lung energy asthnia was 31%, lung-kidney asthnia was 64%. 9. In distribution of Herb medicine treatment, Tonggyu-tang was the most, the second was hyunggaiyunyo-tang. 10 In emotional change of patients aroma-therapy, only 14% of them felt good. 11. The total remedial value of the 22 patients was revealed 32.9%. 12. In proportion to grow older, the remedial value were decreased. 13. In proportion to the period of the clinical history was longer, the remedial value were decreased.

Key words : Allergic rhinitis, tonggyu-tang, hyunggaiyunyo-tang.

서 론

알러지 鼻炎은 社會가 産業化될수록 환경이 不良한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따라서 실내 대기중의 여러 抗原物質에 감작될 可能性이 커지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그 발생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질환이다¹⁻³. 알러지 鼻炎은 주로 아침에 수희에서 수싯희의 發作的인 재채기, 鼻閉塞, 鼻漏 그리고 코, 눈 및 구개, 咽喉 등의 癢痒感이 特徴的인 4대 증상이며, 알러지 鼻炎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抗原으로는 집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이나 비듬, 진균류, 식물류와 같은 吸引性 因子와 寒冷한 氣候條件과 같은 氣象的 因子외에도 營養缺乏, 飮酒, 스트레스, 遺傳性 등이 이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¹⁻³. 한의학에서는 《素問·五臟別論》에 “五

氣入鼻, 藏於心肺, 心肺有病而鼻爲之不利”, 《素問·五常政大論》에 “少陽司天, 火氣下臨, 肺氣上從, 欬嚏, 鼻衄, 鼻窒, ...” 이라 하여 오래전부터 鼻와 肺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 왔으며⁴, 《靈樞·脈度篇》에 “肺於鼻, 肺和則 鼻能知香臭矣” 《靈樞·本神篇》에 “肺藏氣, 氣舍魄, 肺氣虛則鼻塞不利少氣, 實則喘喝胸盈仰息” 라 하여 鼻가 정상적인 通氣와 嗅覺의 機能을 발휘하려면 肺氣가 調和하여 있어 呼吸이 圓滑하여야 함을 言及하였다^{5,6}. 알러지 鼻炎에 대한 韓方治療로는 肺脾腎의 機能을 調節하여 免疫力를 強化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內服藥, 藥鍼, 鍼灸 등이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穴位主射製, 耳鍼治療, 藥鍼, 레이저침이 應用되고 있으며 香氣療法이 副作用이 없는 治療方法으로 널리 使用되고 있다⁷. 이에 著者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10일 까지 大田大學校 附屬 韓方病院에 來院한 患者를 대상으로 기존의 韓方치료와 外治방법의 일환으로 많이 使用되고 있는 香氣療法을 병행하여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교신저자 : 김철중, 천안시 구성동 476-8, 대전대학교 부속천안한방병원
E-mail : omdpy@dju.ac.kr Tel : 041-560-8700
· 접수: 2002/01/12 · 수정: 2002/02/28 · 채택: 2002/03/26

대상 및 방법

1. 관찰대상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10일까지 대전대학교 附屬 한방병원에 내원한 알러지 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관찰방법

1) 性別 및 年齡別 分布, 2) 職業別 分布, 3) 罹患期間別 分布, 4) 發病動機別 分布, 5) 過去歷別 分布, 6) 家族歷別 分布, 7) 鼻塞 併發症狀別 分布, 8) 韓方變症別 分布, 9) 治療處方別 分布, 10) 香氣治療後 患者의 情緒 變化, 11) 治療效果에 대한 主觀의 好轉度 分析, 12) 年齡과 治療效果의 關係, 13) 罹患期間과 治療效果의 關係

3. 치료방법

1) 香氣療法 : 刺戟作用이 있는 Peppermint와 Eucalytus를 한방을 섞 混合한 후 生理食鹽水를 넣고 鼻腔洗滌器를 이용하여 鼻腔內에 噴霧한 후 환자에게 깊이 들이마시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藥物治療 : 辨證에 따라 本院 處方集(通竅湯加味, 荊芥連翹湯加味, 補肺溫湯加味)에 기재되어 있는 처방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3) 鍼灸治療 : 鍼灸治療에 사용된 침은 길이 40mm의 1회용 호침을 사용하였고 遺鍼時間은 15~20분으로 하였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施鍼回數 및 遺鍼時間을 조정하였다.

4. 평가방법

初診時의 症狀의 好轉與否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효과를 판정하였다. 優秀 - 症狀이 75%이상 好轉된 경우, 良好 - 症狀의 50%이상의 改善이 있으나 약간의 障礙가 남아있는 경우, 好轉 - 症狀의 25%이하의 改善이 있는 경우, 不良 - 症狀이 별다른 變化가 없거나 오히려 惡化된 경우.

치료성적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총 22명의 患者중에서 性別 發生頻度는 男子가 10명, 女子가 12명으로 男女의 性比는 1:1.2로 나타났고 年齡別 發生頻度는 9세 이하가 9명, 10대가 4명, 20대가 5명, 30대가 4명, 40세 이상이 0명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연령	0~9	10~19	20~29	30~39	40~	계(%)
성별						
남자	6	1	1	2	0	10(45.5)
여자	3	3	4	2	0	12(54.5)
계(%)	9(42)	4(18)	5(23)	4(18)	0(0)	22(100)

2. 직업별 분포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學生이 13명, 主婦가 4명, 職場人(室內 從事者)이 3명, 職場人(室外從事者)가 2명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직업별 분포

직업	학생	주부	직장인 (실내종사자)	직장인 (실외종사자)	계
환자수(%)	13(59)	4(18)	3(14)	2(9)	22(100)

3. 이환기간별 분포

罹患된 期間을 살펴보면 6개월 이내는 7명, 6개월~1년은 2명, 1년~3년은 6명, 3년 이상은 7명으로 各各 나타났다(Table 3.).

Table 3. 罹患期間別 分布

이환기간	6개월	6개월~1년	1~3년	3년이상	계
환자수(%)	7(32)	2(9)	6(27)	7(32)	22(100)

4. 발병시 계절별 분포(복수 처리)

發病時 季節別 分布를 살펴보면 봄이 11명, 여름이 4명, 가을이 3명, 겨울이 6명 등으로 나타났고 특별히 發病季節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8명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발병시 계절별 분포

발병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불명
환자수(%)	11(50)	1(5)	2(9)	6(27)	8(36)

5. 과거력별 분포

총 22명의 알러지 鼻炎 患者에 나타나는 다른 알러지 질환의 過去歷과 기타 자주 겸하는 症狀에 대해 調査한 結果, 아토피성 皮膚炎이 4명, 피부 알러지가 1명, 喘息이 4명, 특별한 검증이 없는 경우가 13명으로 각각 나타났다(Table 5.).

Table 5. 과거력별 분포

과거력	태열	피부염	천식	없음	계
환자수(%)	4(18)	1(5)	4(18)	13(59)	22(100)

6. 가족력별 분포

알러지성 類似疾患에 대한 家族歷을 調査한 結果 父系에 있는 경우가 4명, 母系에 있는 경우가 2명, 兄弟에 있는 경우가 4명, 특별한 家族歷이 있는 경우가 10명으로 각각 나타났다(Table 6.).

Table 6. 가족력별 분포

가족력	부계	모계	형제	없음	계
환자수(%)	4(18)	2(9)	6(27)	10(46)	22(100)

7. 병발증상별 분포(복수처리)

併發症狀를 살펴보면 재채기는 20명, 水樣鼻漏는 18명, 鼻塞은 10명, 가려움증은 9명, 頭痛은 7명, 喘息은 5명, 消化障礙가 4명, 眼疲勞는 2명, 衄血은 1명으로 各各 나타났다(Table 7.).

Table 7. 併發症狀別 分布

병발 증상	재채기 발작	수양 비루	가려움 증	두통	천식	소화 장애	안피로	윅혈
환자수 (%)	20 (90)	18 (81)	10 (46)	9 (41)	7 (31)	5 (22)	4 (18)	2 (9)
								1 (5)

8. 한방 변증별 분포

한방 변증별 분포를 살펴보면 外感風寒이 1명, 脾肺氣虛가 7명, 肺腎虛弱이 14명으로 各各 나타났다(Table 8).

Table 8. 한방 변증별 분포

변증	외감풍한	비폐기허	폐신허약	계
환자수(%)	1(5)	7(31)	14(64)	22(100)

9. 치료처방별 분포

治療處方別 分布를 보면 通竅湯加味를 쓴 경우 14명, 荊芥連翹湯을 쓴 경우는 4명, 補肺溫湯을 쓴 경우는 3명, 기타는 1명으로 各各 나타났다(Table 9).

Table 9. 치료처방별 분포

치료처방	통규탕	형개연교탕	보폐온탕	기타	계
환자수(%)	14(63)	4(18)	3(14)	1(5)	22(100)

10. 향기치료 후 환자의 정서변화

香氣治療後 患者의 情緒變化로는 優秀가 3명, 良好가 7명, 好轉이 10명, 不良이 2명으로 各各 나타났다(Table 10).

Table 10. 香氣治療後 患者의 情緒變化

정서변화	우수	양호	호전	불량	계
환자수(%)	3(14)	7(31)	10(47)	2(9)	22(100)

11. 총 내원환자의 치료율

總 來院患者의 治療率은 憂愁가 3명, 良好가 4명, 好轉이 12명, 不良이 1명으로 나타났다(Table 11).

Table 11. 총 내원환자의 치료율

치료율	우수	양호	호전	불량	계
환자수(%)	3(14)	4(18)	12(54)	3(14)	22(100)

12. 연령과 치료효과의 관계

알러지 鼻炎 患者의 年齡에 따른 治療率을 調査한 結果 10세미만은 47.2%, 10~19세는 31.2%, 20~29세는 25%, 30~39세는 12.5%로 各各 나타났다(Table. 12).

Table 12. 연령과 치료효과의 관계

연령	0~9	10~19	20~29	30~39	40~	계
우수	3	-	-	-	-	3
양호	2	1	1	-	-	4
호전	4	3	3	2	-	12
불량	-	-	1	2	-	3
Remedial value(%)	47.2	31.2	25.0	12.5	0.0	32.9

13. 이환기간과 치료효과의 관계

총 22명의 來院患者의 罹患期間에 따라 治療率을 計算한 結果, 6개월 이내는 53.5%, 6개월~1년은 25%, 1~3년은 33.3%, 3년

이상은 14.2%로 各各 나타났다(Table 13).

Table 13. 이환기간과 치료효과의 관계

이환기간	6개월이내	6개월~1년	1년~3년	3년이상	계
우수	3	-	-	-	3
양호	2	-	2	-	4
호전	2	2	4	4	12
불량	-	-	-	3	3
Remedial value(%)	53.5	25.0	33.3	14.2	32.9

고찰

최근 국내에서도 산업과 문명의 발달로 內因性 및 外因性 抗原의 증가로 인하여 알러지 질환이 增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알러지 鼻炎이 가장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鼻炎은 鼻腔을 싸고 있는 粘膜의 炎症이라고 定義되며 이러한 鼻腔粘膜의 炎症이 알러지 항원에 대한 過敏反應에 의해 誘發될 경우를 알러지 鼻炎이라고 말한다¹⁻³. 알러지 鼻炎 患者의 鼻粘液속에는 增加된 肥滿細胞가 觀察되는데 이 肥滿細胞의 細胞表面은 IgE에 대한 강한 親和力이 있어 患者가 抗原에 露出되면 그 抗原에 感作된 IgE 抗體는 肥滿細胞 表面의 glycoprotein 수용체에 붙게 되어 여러 가지 세포내 生化學反應을 일으켜 肥滿細胞내의 分泌顆粒의 遊離가 일어나게 된다. 보통 이 반응은 수분내 일어나는 即時反應과 수시간 뒤에 일어나는 遲延反應으로 나타나게 된다. 肥滿細胞와 호염구에서 遊離되는 化學媒介物質들은 이미 形成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免疫反應이 始作된 이후에 합성되는 것도 있다¹⁻³. 이미 形成되어 있는 顆粒들은 히스타민, 키닌과 같은 여러 蛋白分解酵素 등이 있으며 免疫反應이 始作된 뒤 포스포리파제의 活性化로 아라키돈산 대사가 始作됨으로써 生成되는 物質로는 프로스타글란딘, 류코트리엔 등이 있다. 이 分泌顆粒들은 三叉 腦神經 反射弓 刺戟으로 平滑筋 收縮, 粘液分泌, 재채기, 鼻漏, 가려움, 鬱血 등의 즉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好酸球, 大食細胞, 中性球, 好鹽基球 및 섬세포의 침투로 遲延反應이 일어나게 된다². 抗原에 대해 反應된 露出은 鼻粘膜에서 肥滿細胞, 好酸球 및 好鹽基의 증가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한 히스타민과 같은 媒介物質의 분비가 증가하게 된다. 대표적 媒介物質인 히스타민은 末端 感覺神經의 收容體 刺戟으로 血管透過性を 증가시키고 癢痒感, 재채기, 鼻閉塞 등을 惹起시키고 三次 腦神經을 경유한 부교감신경자극으로 癢痒感, 재채기, 鼻閉塞을 惹起시킨다^{1,2,5}. 알러지 鼻炎은 通年性 알러지성 鼻炎과 季節性 알러지성 鼻炎으로 나타나는데 地域, 季節 및 人種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1,2,5}. 일반적으로 계절성 알러지성 鼻炎에서 가장 대표적인 알러젠으로 花粉類를 들 수 있는데 나무에 의한 것은 봄에, 풀 종류에 의한 것은 늦은 봄부터 여름 사이에 그리고 雜草類에 의한 것은 여름 하순부터 초가을 사이에 가장 많이 생기는데 이 중 썩이 가장 흔한 알러젠으로 알려져 있다^{1,2,5}. 통년성 알러지 鼻炎은 집먼지 진드기에 의해 가장 많이 생기는데 이 중 Dermatophagoides farinae와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가 대표적 알러젠으로 알려져 있고 기타 애완동물

즉 고양이 혹은 개의 상피세포, 그리고 면서류, 곡식류, 곰팡이류 등도 주요 알러젠으로 작용한다^{1,2,5)}. 알러지 鼻炎의 診斷은 철저한 病歷 및 診察이 가장 중요하며 臨床的 檢査는 補完的이며 誘發하는 알러젠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대개는 抗原에 露出시 나타나는 특징적인 症狀과 病歷으로 診斷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抗原에 露出된 既往歷이 확실하지 않고 증상중 일부만 나타날 경우 診斷에 어려움이 있다^{1,2,5)}. 病歷調查 그리고 檢耳鏡, 鼻咽喉鏡을 이용한 診察 후 알러지 鼻炎이 의심될 경우 臨床檢査를 施行하는데 코의 분비물에 대한 細胞學的 檢査를 施行하면 好酸球의 增加를 觀察할 수 있고 末梢血液內에도 흔히 好酸球의 增加가 있을 수 있으나 정상일 경우도 많으며 비알러지성 鼻炎시 특히 비내 플립 등이 있을 경우도 증가할 수 있다^{1,2,5)}. 抗原을 이용한 皮膚檢査는 원인 알러젠을 IgE에 의한 면역학적 특이성을 이용한 檢査方法으로 알러지 鼻炎 患者의 診斷에서 비교적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 않으며 副作用이 심하지 않아 흔히 사용하는 有用한 檢査이다. 여기에는 단자검사, 皮內檢査, 피부를 긁어서 檢査하는 搔爬檢査 등이 있다. 皮膚反應을 은폐시킬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를 投與하고 있거나 심한 피부염으로 皮膚檢査를 할 수 없는 경우 방사 알러젠 吸着法을 利用하여 특이 IgE를 檢査할 수 있다^{1,2,5)}. 合併症으로는 漿液性 中耳炎, 慢性副鼻洞炎, 嗅覺減退, 上氣道炎, 비내 플립 등이 있다²⁾. 治療는 첫째 回避療法으로 특이 알러젠에 대한 露出을 피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나 증상이 있을 경우 우선 항히스타민제 使用이 考慮되어야 하고 비충혈 및 臨床反應에 따라 充血 除去製 즉 일차 아드레날린성 약제와 並用하며 cromolyn은 항히스타민제 대신 사용할 수 있고 豫防的 效果가 있는데 局所投與로 하루 4회 혹은 6회 投與로 患者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使用時 考慮해 봐야 한다. 症狀이 심하거나 다른 약제에 反應이 없을 경우 국소적인 스테로이드제를 使用한다. 免疫療法은 患者와 擔當의사의 충분한 對話로 疾病過程과 免疫療法의 이득을 잘 따져 決定해야 한다²⁾. 韓醫學에서는 《素問·五藏別論》에 “五氣入鼻, 藏於心肺, 心肺有病而鼻爲之不利”, 《素問·五常政大論》에 “少陽司天, 火氣下臨, 肺氣上從, 欬嚏, 鼻衄, 鼻窒, …” 이라 하여 오래전부터 鼻와 肺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왔으며⁶⁾ 《靈樞·脈度篇》에 “肺於鼻, 肺和則 鼻能知香臭矣” 《靈樞·本神篇》에 “肺藏氣, 氣舍魄, 肺氣虛則鼻塞不利少氣, 實則喘喝胸盈仰息” 라 하여 鼻가 정상적인 通氣와 嗅覺의 機能을 발휘하려면 肺氣가 調和하여 있어 呼吸이 圓滑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⁶⁾. 韓醫學에서 알러지성 鼻炎은 鼻衄, 噴涕 등의 範疇에 속한다고 하였다. 鼻衄은 鼻流涕, 噴涕, 鼻塞, 不問香臭 등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고, 噴涕는 鼻腔內가 가려우면서 기가 분출할 때 소리내는 것을 말하는데 歷代 文獻에 나타난 증상의 빈도를 보면 鼻出涕, 鼻中因痒爲嚏, 鼻塞不利的 症狀이 가장 많이 言及되어 알러지 鼻炎의 3대 증상과 類似하다 하였다^{4,5)}. 韓醫學적 病因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며 첫째는 肺氣虛弱으로 인한 感受風寒型인데 肺는 원래 惡寒의 藏이므로 寒冷에 접촉하면 즉시 반응하여 肺와 皮毛의 생리기능이 風寒邪의 侵襲으로 病理的인 상태가 되어 본 질환이 발생하는 기전이며 둘째는 肺脾虛弱으로 인한 水濕犯脾型으로

이는 脾의 運化作用이 失調되어 肺의 宣發作用과 肅降作用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게 됨으로 寒濕이 鼻部에 鬱滯되어 발생하는 기전이며 셋째는 肺腎虛弱으로 인한 肺實溫照型으로 이는 腎의 正氣가 부족하여 氣가 歸元하지 못하므로 腎의 攝納作用이 상실되어 寒水가 上泛하기에 鼻流涕가 계속되는 형태이며 이외에 臨床上 드물기는 하지만 그 원인을 火熱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4,5)}. 알러지 鼻炎에 대한 韓方治療로는 肺脾腎의 機能을 調節하여 免疫力를 強化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內服藥, 약간의 塞鼻法, 鍼灸 등이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血位主射製, 耳鍼治療, 藥鍼, 레이저침이 應用되고 있으며 香氣療法이 부작용이 없는 治療方法으로 널리 使用되고 있다⁷⁾. 香氣療法은 疾病 자체의 治療뿐만 아니라 인간의 精神과 肉體를 全體的으로 보고 精氣 즉 自然治癒歷을 增強시킴으로써 治療하는 自然治療法의 한 종류로 芳香性 植物이 가지고 있는 精油를 利用하여 疾病과 증상을 豫防, 치료하며 心身의 機能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이다⁹⁻¹²⁾. 香氣療法은 免疫機能을 높여주고 각각 내부 장기 분비선 호르몬 및 성호르몬을 刺戟하여 各種 機能을 圓滑하게 해주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균에 대한 抵抗力을 높여준다^{4,5)}. 또한 神經을 안정시켜 筋肉을 強化시키거나 弛緩시켜 사람의 마음을 安定시켜 주기 때문에 큰 병보다는 日常生活에서 흔히 겪게 되는 頭痛, 消化障礙, 스트레스, 緊張, 不眠症, 食慾不振 등의 一般的 症狀에 간단하게 使用할 수 있으며 感情에 影響을 주어 安定시키거나 興奮시키는 機能에 있어 吸入을 하면 顯著하게 感情을 變化시켜 슬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등의 感情을 調節시켜 준다^{4,5)}. 香氣療法의 治療機轉은 芳香性 물질을 흡입하면 우리의 후각 신경이 뇌의 가장 오래된 부분인 변연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온갖 感情과 情緒에 관한 機能에 關聯을 주게 된다. 변연계는 性的인 本能, 배고픔, 목마름 등의 原始的 慾求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로 嗅覺神經에서 온 刺戟이 전기적 신호로 이곳에 도달하여 곧바로 消化器管, 生殖器管 등에 連結되어 情緒의 行動과 生理的 反應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기는 身體的, 精神的으로 人體에 影響을 주어 治療效果를 얻을 수 있게 된다^{4,5)}. 香氣療法에 使用되는 精油의 작용은 調節作用, 刺戟作用, 鎮靜作用, 행복감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調節作用에는 자단향, 진피유, 베르가못, 만다린, 동규자유 등을, 刺戟作用에는 박하유, 안향유, 노간주나무, 미질향유, 다유 등을, 鎮靜作用에는 카모마일, 자소유, 마요나라유, 오렌지유, 오렌지유, 백단향유 등을, 幸福感에는 자몽유, 자스민유, 말라야유 교목 등이다^{4,5)}. 著者は 이들 精油中 알러지 鼻炎에 많이 상용하는 薄荷油, 安享油의 2種 精油를 混合하여 使用하였다. 香氣療法의 使用方法은 주로 아로마랩프, 아로마 목욕법, 아로마마사지, 흡입, 국소점질법, 內服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著者は 이들 方法中 코로 향을 들이 마시는 吸入法을 使用하였다^{4,5)}. 총 22명의 患者중에서 性別 發生頻度는 男子가 10명, 女子가 12명으로 男女의 性比는 1:1.2로 나타났고 年齡別 發生頻度는 9세 이하가 9명, 10대가 4명, 20대가 5명, 30대가 4명, 40세 이상이 0명으로 各各 나타났는데 이는 백¹³⁾이 文獻에서 밝힌 發病時期가 주로 小兒期라고 한 내용과 多少 一致한 結果로 思料된다. 職業別 分布를 살펴보면 학생이 13명, 주부가 4명, 職

場人(室內從事者)이 3명, 職場人(室外從事者)이 2명으로 나타났는데 실내에서 생활하는 기간과 關聯이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罹患된 期間을 살펴보면 6개월 이내는 7명, 6개월~1년은 2명, 1년~3년은 6명, 3년 이상은 7명으로 各各 나타났다. 發病時 季節別 分布를 살펴보면 봄이 11명, 여름이 4명, 가을이 3명, 겨울이 6명 등으로 나타났고 특별히 發病季節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8명으로 나타났는데 특별한 季節이 없이 症狀이 나타나는 경우는 通年性 알러지로 思料되고 발병 季節別로 보면 봄과 겨울이 많았는데 봄과 겨울은 季節性 알러지의 代表的인 季節로 認識되어 있는 상태와 一致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총 22명의 알러지성 鼻炎 患者에 나타나는 다른 알러지성 질환의 過去歴과 기타 자주 겸하는 症狀에 대해 調査한 結果 아토피성 皮膚炎이 4명, 皮膚 알러지가 1명, 喘息이 4명, 특별한 謙證이 없는 경우가 13명으로 各各 나타나 59%의 경우가 특별한 過去歴이 없어서 有病率이 계속 增加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알러지성 類似疾患에 대한 家族歴을 調査한 結果 父系에 있는 경우가 4명, 母系에 있는 경우가 2명, 兄弟에 있는 경우가 4명, 특별한 家族歴이 없는 경우가 10명으로 各各 나타나 알러지 鼻炎 患者와 그 가족에서 동반된 아토피 질환의 빈도는 보고자, 대상지역과 환자선택, 진단적 기준, 가족의 정적 범주 및 조사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併發症狀을 살펴보면 재채기 20명, 水樣鼻漏 18명, 鼻塞 10명, 가려움증 9명, 頭痛 7명, 喘息 5명, 消化障礙 4명, 眼疲勞 2명, 衄血 1명으로 各各 나타나 並發症狀에 대한 빈도는 백¹³⁾의 문헌내용과 대체로 一致하는 결과였다. 韓方 辨症別 分布를 살펴보면 外感風寒 1명, 脾肺氣虛 7명, 肺腎虛弱 14명으로 各各 나타났다. 이는 脾肺氣虛와 肺腎虛弱이 複合的으로 있어 주로 脾肺腎의 虛弱으로 인해 發病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治療處方別 分布를 보면 通竅湯加味를 쓴 경우 14명, 荊芥連翹湯을 쓴 경우 4명, 補肺溫湯을 쓴 경우 3명, 其他 處方은 1명으로 各各 나타났다. 香氣治療後 患者의 情緒變化로는 優秀가 3명, 良好가 7명, 好轉이 10명, 不良이 2명으로 各各 나타나 香氣治療를 받은 45%에서 良好한 效果를 본 것으로 思料된다. 총 來院患者의 治療率은 憂愁가 3명, 良好가 4명, 好轉이 12명, 不良이 1명으로 나타났다. 알러지 鼻炎 患者의 年齡에 따른 治療率을 調査한 結果, 10세미만은 47.2%, 10~19세는 31.2%, 20~29세는 25%, 30~39세는 12.5%로 各各 나타나 年齡이 많을수록 患者의 主觀的 好轉度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來院 患者의 罹患期間에 따라 治療率을 計算한 結果, 6個月以內는 53.5%, 6個月~1年은 25%, 1~3年은 33.3%, 3年 이상은 14.2%로 各各 나타나 罹患期間이 많을수록 患者의 好轉度 또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最近 鼻炎, 喘息 등의 알러지 질환이 增加趨勢에 있고 治療 또한 쉽지 않아 罹患期間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持續的인 臨床研究로 外用方法이나 免疫機能強化에 관한 治療法의 持續的인 開發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결 론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10일까지 大田大學校 附屬 韓方病院에 來院한 22명의 알러지성 鼻炎患者에 대한 臨床考察

을 한 結果, 性別 發生頻度는 男子가 10명, 女子가 12명이고 年齡別 發生頻度는 9세 以下가 9명, 10대가 4명, 20대가 5명, 30대가 4명, 40세 以上이 0명으로 各各 나타났고, 職業別 分布를 살펴보면 學生이 13명, 主婦가 4명, 職場人(室內從事者)이 3명, 職場人(室外從事者)이 2명으로 나타났다. 罹患된 期間을 살펴보면 6個月以內는 7명, 6個月~1年은 2명, 1年~3年은 6명, 3年 以上은 7명으로 各各 나타났으며, 發病時 季節別 分布를 살펴보면 봄이 11명, 여름이 4명, 가을이 3명, 겨울이 6명, 특별히 發病季節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8명으로 나타났다. 過去歴은 아토피성 皮膚炎이 4명, 皮膚 알러지가 1명, 喘息이 4명, 특별한 謙證이 없는 경우가 13명으로 各各 나타났다. 家族歴은 父系에 있는 경우가 4명, 母系에 있는 경우가 2명, 兄弟에 있는 경우가 4명, 특별한 家族歴이 있는 경우가 10명으로 各各 나타났다. 並發症狀을 살펴보면 재채기는 20명, 水樣鼻漏 18명, 鼻塞 10명, 가려움증 9명, 頭痛 7명, 喘息 5명, 消化障礙 4명, 眼疲勞 2명, 衄血 1명으로 各各 나타났고, 韓方 辨症別 分布를 살펴보면 外感風寒 1명, 脾肺氣虛 7명, 肺腎虛弱 14명으로 各各 나타났으며, 治療處方別 分布를 보면 通竅湯加味를 쓴 경우 14례, 荊芥連翹湯을 쓴 경우는 4례, 補肺溫湯을 쓴 경우는 3례, 기타는 1례로 各各 나타났다. 香氣治療後 患者의 情緒變化로는 優秀가 3명, 良好가 7명, 好轉이 10명, 不良이 2명으로 各各 나타났다. 총 來院患者의 治療率을 憂愁가 3명, 良好가 4명, 好轉이 12명, 不良이 1명으로 나타났고, 年齡에 따른 治療率을 調査한 結果 10세미만은 47.2%, 10~19세는 31.2%, 20~29세는 25%, 30~39세는 12.5%로 各各 나타났다. 罹患期間에 따라 治療率을 計算한 結果, 6개월 이내는 53.5%, 6개월~1년은 25%, 1~3년은 33.3%, 3년이상은 14.2%로 各各 나타났다. 以上の 臨床的 結果로 여러 文獻에 言及한 알러지성 鼻炎에 대한 역학적인 理論과 本院에 來院한 患者에 대한 臨床考察 結果는 比較적 一致하였고 年齡이 어릴수록, 罹患期間이 짧을수록 治療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욱더 客觀的인 結果를 얻기 위해서 좀 더 많은 臨床期間과 患者들을 통한 研究가 必要할 것으로 思料된다.

참고문헌

1. 盧寬澤 : 耳鼻咽喉科學, 서울, 一潮閣, pp.204~208, 1999.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내과학 I, 서울, 군자출판사, pp.922~935, 1997.
3. 鄭奎萬 : 알레르기과 韓方, 서울, 圖書出版 제일로, pp.15~26, 59~97, 1990.
4. 李珩九의 : 東醫肺系內科學, 서울, 도서출판 아트동방, p13, 1999.
5. 盧石善 : 眼耳鼻咽喉科學, 서울, 一中社, pp.569~570, 1999.
6. 王 冰 : 黃帝內經集註, 서울, 高文社, p.16, 37, 291, 1974.
7. 金賢兒 :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한 문헌적 考察, 대한 외관과 학회지, 7(1):53~84, 1994.
8. 金南權 :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에 대한 臨床的 考察, 대한 외관과 학회지, 10(1)367~382, 1997.

9. 이세희 : 아로마 테라피, 서울, 흥익제, pp.28~30, 40~44, 227~235, 1995
10. 주경옥 : 향 향수 향기, 서울, 세창출판사, pp.168~171, 1995.
11. 스즈끼 소노코 : 스즈끼식 향기 다이어트, 서울, 도서출판 삶과 꿈, pp.41~45, 1995.
12. 오홍근 : 자연치료의학, 서울, 가림출판사, pp.23~28, 87~140. 1996.
13. 白萬基 : 最新耳鼻咽喉科學, 서울, 一潮閣, pp.192~196, 1994.
14. 이증달 : 그림으로 설명한 병리학, 서울, 고려의학, pp.115~118, 1991.
15. 의학교육연수원 : 가정의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809~811, 1996.
16. Ballenger, J. J. : Diseases of the Nose, Throat, Ear, Head and Neck, 14th ed., 1991.
17. Gluckman, J.L. : "The Clinical Approach to Nasal Obstruction," J. Regir Dis., 4:13~29, 1983.